

## 관계중독 회복을 위한 성경적 상담의 삼중구조 관계

정 인 숙\*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상담의 삼중구조 관계를 기반으로 관계중독의 회복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관계중독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욕구를 충족하고자 끊임없이 관계를 갈망하는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자기애적인 행동이다. 관계중독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관계중독의 관계 방식이 상담관계에서도 반복되며, 강한 힘을 발하는 중독성이 있어 상담자-내담자의 이자(二者)관계에서는 치료적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자관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삼중구조의 상담관계를 통한 관계중독의 회복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삼중구조 상담관계는 공감적 신뢰관계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상담자-내담자라는 삼중구조의 상담관계를 통하여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치료적 관계를 강조한다. 하나님이 상담의 주체가 되시는 수직적인 국면이 일반적인 상담의 이자관계 형태의 상담과 차별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관계중독자들의 교회공동체 소속과 연대감, 정체성 확립과 관계의 확장, 교회공동체의 돌봄 사역을 통한 방향성이 관계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주제어 :** 관계중독, 성경적 상담, 상담관계, 상담자, 교회공동체

• 논문 투고일: 2017년 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11월 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5일

\* 피스메이커 상담센터

## I. 여는 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관계적 존재로서 평생 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본질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삶이 낱알이 기계화 되어가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어느 때 보다도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친밀감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개인주의적이고 혼란한 가치관이 만연한 현시대적 경향은 사람들이 건강한 인간관계 맺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갈망함과 동시에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기짐은 사람에 대한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최근 개인과 가정,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이다.

관계중독은 중독 현상 중 하나로 ‘관계’에 중독되는 것이며 중독 현상은 약물, 알코올 등 기타 중독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sup>1)</sup> 그것은 중독 대상이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또는 불편한 마음을 회피하기 위해 더욱 그 대상에게 집착하는 것이다.<sup>2)</sup> 관계중독으로부터 오는 부적응은 심리적 공허, 불안,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관계중독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사고 및 신체와 정신적인 질환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과 가정, 사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관계중독의 심각성을 볼 때 그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1) 이재진,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서울: 투리박스, 2015), 40-41.

2) Susan Peabody, *Addiction to Love*, 류가미 역, 『사랑중독』(서울: 북북서, 2010), 167-178.

필요하다. 관계중독자들이 관계로 인해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약 물이나 일반적인 심리 상담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을 간과한다면 재발이 불가피하다. 중독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분히 심리적이고 인간 존재의 의미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임을 알게 된다.<sup>3)</sup> 따라서 관계중독자들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관계중독의 심층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적 상담에서 중점이 되는 마음의 동기에 대한 초점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또한 관계중독의 중독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독 치료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관계중독의 회복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성경적 상담의 삼중구조 상담관계를 제시하고 상담관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삼중구조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자세와 역할의 중요성을 모색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적 관계가 관계중독 치료의 핵심요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관계중독자의 전인격적인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족공동체로서의 교회공동체 소속과 연대감,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건강한 관계의 확장,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한 교회공동체의 돌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Edward T. Welch,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김준 역, 『중독의 성경적 이해』(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34-37.

## II. 찢는 글

### 1. 관계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 1) 관계중독의 개념과 특징

관계중독은 건강치 못한 관계임을 인식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매여 있는 관계를 말한다.<sup>4)</sup> 관계중독이라는 용어는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 사랑중독(love addiction), 중독적 관계(addictive relationship), 중독적 사랑관계(addictive love)로 불리고 있는데, 용어들의 공통점은 인간관계 속에서 중독적인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관계중독은 중독물이 바로 '사람'이 된다. 말하자면 관계중독이란 오직 친밀한 관계 맺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갖는 것에만 집착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중독된 관계는 사랑이 너무 과도함과 동시에 결핍된 상태로 상대방에 대해 격렬하거나 과잉된 반응으로 몰입하고 기대하게 된다.<sup>5)</sup>

관계중독의 하위유형은 첫째, 사랑중독이다. 이는 실제로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에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고 믿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 둘째, 사람중독이다. 이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그 대상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관계의 균형을 파괴한다. 셋째, 성중독이다. 성중독자들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중독은 쾌락의 추구이지만 실제로는 힘에 대한 추구이며, 자신을 파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성적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의미이

4) 김상인, 『상담심리 용어사전』(서울: 생명의 샘가, 2000), 25.

5) Martha R. Bireda, *Love Addiction: A Guide to Emotional Independence*, 신민섭 역, 『사랑중독증』(서울: 학지사, 2005), 14.

다.<sup>6)</sup>

관계중독의 특징으로는 동반의존과 정체성 상실, 취약한 경계선, 정서적 허기와 우울감, 유기불안이 나타난다.

(1) 동반의존과 정체성 상실

동반의존(co-dependence)은 어떤 대상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하나의 질병이다. Schaefer는 동반의존을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 사이에 나타난 과도한 의존관계로 정의한다. 중독자는 알코올이나 약물 등에 의존하고, 가족들은 이러한 중독자에게 의존하며 자신이 중독자들에게 계속 필요한 존재로 남기를 원한다.<sup>7)</sup> 동반의존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잃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를 진정으로 돕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은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반복적인 관계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와 충동으로 인해 이들은 불안, 우울, 공포, 분노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sup>8)</sup>

(2) 취약한 경계선

Subby는 가족체계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대응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지연된 정체성 발달 증후군이 바로 동반의존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각 개체들 간의 친밀감과 동시에 개체로서의 분리 사이의 경계선 문제로 보았다. 즉 경계선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아경계선을 말

6) Thomas Whiteman & Randy Petersen, *Victim of Love*, 김인화 역,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서울: 사랑플러스, 2009), 42-54.

7) Anne Wilson Schaefer, *Co-Dependence: Misunderstood-Mistreated*(Minneapolis: Winston Press, 1986), 21-26.

8) Fugen Neziroglu & Jose A. Yaryura-Tobias, 지익성 · 김영란 역, 『자유를 찾아서-강박신경증의 이해』(서울: 하나의학사, 1997), 19-23.

한다.<sup>9)</sup> 관계중독자들은 외부에서 자기를 보호할 자아경계선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친밀감의 갈망이 집착으로 변형되어간다. 자아경계선이 제대로 형성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타인도 존중하는 분명한 인식이 생긴다. 그러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게 되어 인간관계에서 불안과 혼돈을 초래한다. 타인을 ‘또 다른 나’로 여기며 경계를 긋지 않고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특정 대상과의 관계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독적 관계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고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경계가 사라진 관계이다.<sup>10)</sup>

### (3) 정서적 허기와 우울감

관계중독자들은 만성적인 정서적 허기를 느낀다. 정서적 허기는 아동기 박탈감에서 비롯된 강한 정서적 욕구 상태이며, 원초적인 고통과 갈망의 상태로 종종 사랑이라고 오인된다. 이것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지닌 감정이다.<sup>11)</sup> 이는 현실적인 감각을 저하시키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중독자는 관계에서 정서적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울감을 느낀다. 이것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자신의 내부로 투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울감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따른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무기력이 아닌, 존재감이 약화되어 존재에 대한 회의와 고통을 겪는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의존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만 모든 촉각을 세우며 사랑에 대한 지나친 갈망, 낮은 자존감, 불안, 외로움에 대한 공포, 만성적 우울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함께 나타

9) Robert Subby, *Healing the Family within*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1990), 43-44.

10) M. R. Bireda, *Love Addiction*, 신민섭 역, 『사랑중독증』(서울: 학지사, 2005), 14-15.

11) Robert W. Firestone & Joyce Catlett, *Fear of Intimacy*, 김경옥 역, 『친밀감의 두려움』(서울: 눈 출판그룹, 2012), 123.

난다.<sup>12)</sup>

#### (4) 유기불안

유기불안은 버려진 듯한 느낌과 불안정한 정서적 경험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도식은 생애 초기 경험이 기초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이며 초기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상황이 누적 될 경우에 유기불안을 포함한 유기도식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sup>13)</sup>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 유무에 따라 긴장과 무기력의 연속적인 양상을 보이며 관계를 맺을 대상이 없거나 형성된 관계를 유지할 경우 나타난다. 유기도식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에 쉽게 압도되거나 어린 시절의 불안감을 재 경험하게 된다. 관계중독자들은 관계에서 받는 고통보다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쁜 관계라도 맺는 것이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행복 해 질 수도 없다는 느낌을 가진다.<sup>14)</sup>

## 2) 관계중독의 원인

### (1) 자아 미분화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가족체계 이론가인 Murray Bowen의 핵심개념으로 정신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는 가족은 살아있는 개체로서 하나로 뭉쳐져 있는 자아 덩어리와 같다고 하였다.<sup>15)</sup> 자아분화는 자아강도에 비유할 수 있는 개념이며 사회적인 관계

12) Peabody, 『사랑중독』, 165-166.

13) M. Mikulincer,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no. 2(2002): 133-161.

14) Whiteman & Petersen,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39.

15) Murray Bowen,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in *Family Therapy: Major Contributions*, eds. Robert J. Green & James L. Framo(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1), 281.

속에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사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아분화가 안 된 사람은 정서체계가 지적체계를 지배하여 감정에 의존된 행동을 하기 쉽다.<sup>16)</sup> 관계중독의 경우에도 주로 감정 반사를 통해서 관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에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미해결된 정서애착은 관계중독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융합과 의존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 (2) 불안정 애착

John Bowlby는 애착을 한 인간이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고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이 이 후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17)</sup> 애착형성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유발되는 심리적인 고통을 스스로 해소 할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 강박적으로 몰두하고 강한 의존성을 갖게 된다. 또한 관계 맺는 대상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관계 자체에 집착한다. 한 성인이 경험하는 애착 안에는 주 양육자로부터 경험된 정서조절이 포함되어있다. 즉, 성인은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정서조절 경험이 내재화 되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기부터 형성되어 온 애착유형이 반영된 정서조절능력을 갖게 된다.<sup>18)</sup>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해서 위안을 받았다면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기억해서 강화시키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자기위로 능력이 낮을 수 있다. 애착형성이 불안정 할수록 심리적 허기를 채우고자 관계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몰입이 나타나고 이는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16) 김용태,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2000), 37.

17) John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London: Hogarth, 1973), 235.

18) M. Mikulincer & P. Shaver, *Attachment in Adulthood*(New York: Guilford Press, 2007), 188-218.

## (3) 자기의 결핍

사람은 안정된 자기(self)를 확립하기 위해 자기의 응집성, 탄력성, 항상성을 느낄 수 있는 자기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타인이 필요한데 Heinz Kohut은 이를 '자기대상(selfobject)' 이라고 하였다.<sup>19)</sup> 그는 건강한 자기의 형성은 자기의 일부로 경험되는 부모와 같은 자기대상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공감적 기능을 수행 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건강하고 응집적인 자기(cohesive self)는 공감적인 자기대상과의 융합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수용해주는 환경에서 형성되지만, 공감적 자기대상 기능이 심각하게 결여된 경우에는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가 되어 자기의 구조적 결함을 초래하고 성격장애와 중독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계중독은 스스로 자기 욕구의 긴장을 조절하여 자기를 달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대상의 기능으로부터 잘 내면화되지 못한 자기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대상의 공감적 기능의 실패로 인해 결핍된 자기구조를 메우기 위해 자기대상 기능의 대체물로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관계에 매달리는 자기애적인 행동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내부로부터 기능할 수 없는 것을 외부로부터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결함을 가진 자기를 복구하고자 하는 방어적 태도이다. 구조적 결함의 원인은 이상화된 자기대상이 아이에게 이상화된 전능적 고요함-변형적 내재화를 통해 자기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제어하는 심리구조가 되어야했던 고요함-을 제공하지 못한 데 있다.<sup>21)</sup>

19) Jay R. Greenberg & Stephen R.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548.

20) 홍이화,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85-89.

21)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31.

## 2. 관계중독에 대한 성경적 이해

### 1)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

####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관계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며 성품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구조적인 측면과 '인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는 기능적인 측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서로부터'라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창 3장).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원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저버리는 것이며 비인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sup>22)</sup> 이는 하나님 중심적 상태에서 자기중심적 상태로 변질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이로 인하여 동료와 왜곡된 관계를 맺게 되고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22)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서울: SFC출판부, 2005), 142.

되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관계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확연하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훼손된 인간을 복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회복을 이루셨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며 인간관계에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안에서 교회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타락한 욕망과 관계중독

성경적 관점에서는 중독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 혹은 죄의 행위로 이해하고 중독자의 도덕적, 실존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알코올, 약물, 마약의 환각적인 체험은 인간의 유한성과 불안을 초월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비적 체험의 영적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관계중독 역시 내면의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중독의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죄의 실재이다. 죄는 인간을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 중독이 심리적 무기력, 통제능력의 상실, 역기능적 가족 체계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관점은 중독의 영적인 속성을

23) 김병오,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49.

무시한 것이다. 중독은 인간을 유혹하고 노예화시키며 파괴하는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롬 7:14-25, 롬 8:7-8). 타락한 욕망으로서의 관계중독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예속화되어가는 과정과 그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3) 자기숭배와 관계중독

성경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겔 14:3)라고 말씀하며 인간이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하였다.<sup>24)</sup>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이용하는 시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 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sup>25)</sup>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자신의 죄에 굴복하여,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에게 경배하기로 선택한 것이다(롬 1장). 즉, 우상을 이용한 좋은 느낌, 더 나은 자아의 이미지, 마음에서 갈망하는 어떤 것들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상은 인간의 바람대로 되도록 협조하지 않고 인간은 우상을 지배하기보다는 점차 노예화되며 우상 뒤에 숨겨진 지배적인 힘에 의해 끌려간다.<sup>26)</sup> 욕망의 충족을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들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았기 때문이다.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내적인 갈등과 자존감 결여, 스트레스, 심리적 고통 등 온갖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발생한다.<sup>27)</sup> 관계중독은 관계를 통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24) Timothy Keller,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서울: 베가박스, 2009), 21.

25) 이상원, 『21세기 십계명 여행』(서울: 토기장이 1999), 60.

26) Welch, 『중독의 성경적 이해』, 80.

27) Kenneth Gergen, *The Saturated Self: Dilemma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Life*(New York: Basic Books, 1991), 13.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욕망이며 자기숭배(self-worship)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회복과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관계회복 없이는 관계중독이 재발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중독의 대체물로 옮겨가게 된다.

### 3. 관계중독 회복을 위한 성경적 상담의 삼중구조 관계

#### 1)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해

성경적 상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죄로 타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삶의 근본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시므로 관계중독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적 상담의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에 대한 이해이다. 마음은 한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음을 밝혀주고 있다(렘 17:9). 인간의 불가피한 죄의 근원은 인간 존재의 핵심, 즉 마음에 있다.<sup>28)</sup> 성경적 상담에서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마음은 한 인격을 구성하는 사고와 감정, 의지의 영역으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로 이끈다.

둘째, 고통에 대한 이해이다. Paul David Tripp은 내담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죄와 책임에 대한 말씀만으로 인격적 사역에 접근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방식에 상

28)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이용중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238.

담자가 끼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담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똑같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9)</sup> 상담자가 내담자와 동일한 정체성을 나눌 때, 성경의 진리들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sup>30)</sup>

셋째, 상담의 주체에 대한 이해이다. 일반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이자(二者)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반면, 성경적 상담자는 상담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성령을 의지하여 내담자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paracletos, 요 14:16)로서 능동적으로 사역현장을 돕는 분이다. 성경적 상담은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론에 앞서 상담자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며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신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sup>31)</sup>

넷째, 변화의 핵심에 대한 이해이다. 변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어려움을 통해서 겸허해진 인간에게 죽음 뒤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승리의 확신을 일깨워서 고난을 직면할 힘을 준다.<sup>32)</sup> 이는 내담자의 마음에 변화의 동기를 주고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다섯 째, 변화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전체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법이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29) Heath Lambert,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s after Adams*, 김 준 역,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95-96.

30) Paul Davi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7), 218.

31) 김영근, “기독교 상담과 성령”,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72.

32) 김영희, “21세기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3권(2004): 85.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위로의 능력이 되고 생명력을 주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사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사역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하나님의 오시는 사역과 인간 실존에 참여하는 두 가지 일을 대변하는 것이다.<sup>33)</sup>

여섯 째, 상담자의 모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히 2:11),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빌 2:6-7).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적 자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자는 단순히 진리를 구현할 뿐 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sup>34)</sup> 상담자가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상담할 때 내담자는 자신의 계획과 영광의 공허함을 드러낸다. 내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상담자와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다. 성육신적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장벽을 깨뜨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일체감이 생기게 한다.<sup>35)</sup>

## 2) 관계중독 회복을 위한 삼중구조 관계 이해

상담에 있어서 관계형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변화는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작업을 해가는 과정이며, 상담의 결과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의 질에 달려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관계(counseling relationship) 자체가 치료적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상담관계를 특징짓는 것은 상담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고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가치이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가진 가치는 내담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

33) 김영희, “21세기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78.

34)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199-200.

35)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서울: 바이블리더스, 2008), 103.

다.<sup>36)</sup> 하나님-상담자-내담자로 구성된 삼중구조 상담관계의 접근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여기의 상담 장면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담자가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담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감적 관계형성을 통해 내담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삼중구조 상담관계의 핵심이다.

(1) 상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상담자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성경적 상담에서 변화와 성장의 대상은 내담자 뿐 만 아니라 상담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담자는 하나님 중심의 접근 방법을 지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접근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관계 안에서 각각의 내담자에게 맞게 사랑과 진리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써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노력은 내담자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도구로 작용한다. 성경적 상담은 내담자의 상황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내담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상담을 통한 말씀사역은 에베소서 4장의 '사랑 안의 진리'를 모델로 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안에 싸여 있는 강력한 진리의 결합이다.<sup>37)</sup> 또한 성경적 상담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상담자의 기도는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sup>38)</sup> 일반상

36) Gerard Egan, *Essentials of Skilled Helping Managing Problems and Developing Opportunities*, 제석봉 역, 『Egan 상담모델과 상담기술: 문제해결과 기회개발』(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2008), 38.

37)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45.

38) 전요섭, "목회상담에서 기도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결신학연구소, 「성결신학」 제3권(1998): 1-12.

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성경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상담자는 상담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대 명령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변화는 내담자의 상황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에 대한 이해에 비례해서 내담자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다.<sup>39)</sup>

## (2)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상담사역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 내담자의 문제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그가 겪는 문제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 된다. 내담자는 상담의 전 과정에 걸쳐 상담자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성령은 내담자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시고 복음으로의 초청에 인간의 자유 의지로 선택하도록 기다리신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도우시며, 내담자가 맺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도 역사하신다.<sup>40)</sup> 하나님과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의 부재가 중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은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내담자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실재(reality) 이미지의 변화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에 기인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을 위축시키고 모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와 연결된 자기 이미지는 자

39) John MacArthur, *How to Counsel Biblically*, 안경승 역, 『상담론』(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179.

40) Der Tarr,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eds.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Peabody, MA.: Hendrickson, 1985), 22; 전요섭,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3권(2004): 17에서 재인용.

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며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계중독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핵심요인이므로 내담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재형성되고 자기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는 하나님, 자신,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확립하는 관점의 변화를 촉진하며 영적인 성숙을 가속화한다.<sup>41)</sup> 따라서 성경적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하나님 이미지를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담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감적 상담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3)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성경적 상담에서 상담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방법이나 기술적인 영역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지금-여기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죄성(罪性)을 가진 인간에 대한 인식이다. 인간의 죄나 문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sup>42)</sup>

삼중구조 상담관계는 공감적 관계이며 관계 자체가 치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보여주신 참여적인 공감이며

41) 안은숙,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2013): 169-171.

42)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187.

성령의 간섭과 섭리가 나타나는 관계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이 되어 인간들을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간과 동일시의 과정을 겪으셨다(빌 2:4-9). 이러한 성육신적 공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43)</sup> 상담자는 성육신적 공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담자의 세계로 들어가 깊이 이해함으로써 신뢰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수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내담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마음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어 내담자의 삶에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sup>44)</sup>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신다(엡 4:15). 즉, 진리를 말할 때에도 정죄나 판단하는 태도가 아닌 사랑과 수용의 태도로 말해야 한다. 성경적 상담의 상담관계에서는 내담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가족적 인식체계가 중요하다. 성경적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전에 내담자와 함께 사랑과 고통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겸손한 태도는 내담자를 돕는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상담자로 착각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내담자와 같이 죄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내담자에게 상담자도 '과정에 있는',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5)</sup> 성경적 상담의 과정에서는 내담자 못지않게 상담자도 상담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된다는 데 가치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죄의 문

43) 김영근, "기독교 상담과 성령", 66-67.

44) 황규명,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과 복음",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4권(2005): 17.

45)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215-216.

제들을 직면해야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고통 중에 있는 내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다. 이는 내담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열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중독의 경우 신뢰와 수용적인 상담관계가 구축될수록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감적인 관계는 내담자가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욕구의 집착에서 벗어나 관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적 상담은 단순한 이자(二者)간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중에 내담자와 상담자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에게서 출발점을 삼는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시작하는 상담이다.<sup>46)</sup>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을 때 내담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담자의 인격적인 결함과 미해결된 심리적 문제들, 성급한 진단이나 과도한 해석, 상담기술의 남용 등은 내담자의 하나님 경험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설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민감해져야 한다.<sup>47)</sup> 상담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장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대화(equihuman address)를 나눌 때 가능하다.<sup>48)</sup> 상담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 성령의 역사의 장이 마련된다. 삼중구조 상담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46) 이홍찬, 『개혁신주의 목회상담학』(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8-19.

47)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전요섭·황동현 역, 『위기상담학』(서울: 쿰란출판사, 1998), 222.

48) J. Firet, *Dynamics in Pastoring*, trans. John Vriend(Grand Rapids, MI.: W. B. Eerdmans, 1986), 160; 김영희, “21세기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79에서 재인용.

상담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엡 2:19-22).

### 3) 관계중독 상담의 핵심요인

#### (1) 공감적 관계형성

관계중독 상담에서 치료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털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외상의 궤도를 역방향으로 바꾸어 자기를 구조화하는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관계중독 상담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중요하다. 공감은 타인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그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다.<sup>49)</sup> 삼중구조 상담관계는 단순히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아닌 공감적 관계(empathic relationship)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감적 관계는 상대방과 심리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일부로써 느끼는 것과 같은 심리적 현상이므로 객관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감의 대상이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성경적 상담에서 말하는 공감은 상담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상담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상담자의 성품과 자세를 말한다. 상담자는 관계중독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보다 영혼의 깊은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감을 경험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내담자를 대할 때 가능하다. 공감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상담자가 느끼는 불안으로, 대개 잘 인식되지 않는다. 상담자가 직업적인 기술이나 기법에 지

49) 홍이화,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219.

50) 김 준, “부부갈등과 용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적 관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5권(2017): 17.

나치게 몰두하면 내담자와의 관계가 비인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담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충동의 흐름에 대해 민감하면서도 정서적 유연성으로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관계중독 상담에서 중요한 치료요인은 상담자와의 공감적 관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삼중구조(하나님-상담자-내담자)관계 안에서 중독 대상에 대한 집착을 중화하고 새로운 관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을 통해서 기존의 부정적인 관계 방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상담자의 역할은 관계중독자의 근원적 갈망을 본질적으로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성령이 현존하는 역사를 상담의 상황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 (2) 존중과 수용

존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며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이다. 존중을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방법에는 서로를 바라보기(looking at), 특별한 지위를 제공하기,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하기 등이 있다. 이는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라도 그 곳에 존재해 주는 것이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존경에 대한 회복과 재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sup>52)</sup> 공감적 관계를 강조하는 삼중구조 상담관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내담자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내담자는 조건 없이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신을

51) 정석환, “코헷의 자기심리학과 목회상담”, 연세대신과대학교, 「신학논단」 제27권 (1999): 344.

52) Tom Marshall, *Right Relationships*, 채두병 역, 『관계』(서울: 예수전도단, 2004), 98-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내면의 결핍과 수치심이 치유된다.<sup>53)</sup> 그러나 상담자가 주의할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잘못된 관계나 행위를 정당화 하는데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독자들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무조건적인 승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중독 행위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 (3) 경계

건강한 경계를 갖는 것은 상담자의 전문성과 상담윤리의 측면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며 상담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서로가 힘의 불균형으로 묶여 있지 않는 경계를 만들며 동시에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관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중독자들은 건강한 경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관계에서도 집착과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상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가 내담자의 요구에 휘둘리면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이전의 부정적 관계 방식을 되풀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과도한 관계적 욕구나 의존성을 이해하고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와 ‘타인’ 간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

### (4) 지지와 격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관계중독은 오랜 시간 유지해 온 잘못된 관계 방식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데 내담자의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들은 건강한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는 관계를 찾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한 ‘함께함’이

53) John Bradshaw,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김홍찬·고영주 역, 『수치심의 치유』(서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상담연구원, 2002), 180-181.

필요하다.

상담자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결단하여 자신과 분투하고 있는지를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며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변화와 시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격려하며 내담자도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상담자의 지지와 격려는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며 이후의 건강한 관계 경험을 맺는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관계중독의 상담관계에서는 내담자를 보는 상담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보는 것에 앞서 문제 속에 놓여 있는 한 인간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외로움과 관계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의 이론이나 기법, 성급한 판단이나 해석, 편견, 감정, 경험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바라보고 내담자의 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 4. 교회공동체를 통한 관계중독의 회복과 성장

##### 1) 교회공동체 소속과 연대감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독의 회복은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장소이고 그 곳에서 인간은 회복의 여정에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sup>54)</sup> 교회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더 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특히 관계중독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새

54)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2010):

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더욱 갈망하기에 가족공동체인 교회공동체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게 되면 자기 정체성 확립과 관계의 회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중심적인 개인적 자아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적 자아로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고백할 때 은혜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겸손, 온유, 용서와 긍휼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 관계중독자는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초대되어 온전한 관계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 2) 정체성 확립과 관계 확장

교회공동체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바꾼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하신 말씀처럼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을 수 있다.<sup>55)</sup> 예수님을 통해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들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가 치유되고 삶의 유익을 얻는 경건한 변화가 일어난다.<sup>56)</sup> 관계중독자는 지금까지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어왔기 때문에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고 적절한 의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55) 김준수, 『마음의 치유』(서울: 디모데, 2008), 13-14.

56) Welch, 『중독의 성경적 이해』, 340.

교회공동체는 관계중독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의 관계성을 가지면서 강한 적개심과 양가감정을 다루는 법을 익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sup>57)</sup> 또한 이들을 수용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계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의존의 욕구를 채워주면서도 비 일관적이고 모순된 것이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때 회피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피드백과 합의를 통해서 해소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sup>58)</sup> 관계중독자는 관계로 인해 고통 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창:1장)에 나타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경건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 3) 교회공동체의 돌봄 사역

교회공동체의 중독자를 위한 돌봄 사역은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가는 표현이며 실천이다. 돌봄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대전제를 목표로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공감적으로 함께함(presence)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일이다.<sup>59)</sup> 돌봄 사역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동지애를 주고 은사를 개발하도록 도우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지지와 격려를 주는 사역이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엡 4:16) 지체의식을 가지는 일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롬 12:15) 공감의 필요성, 그리고 “더 약하게 보이

57) Philip J. Flores,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김갑중 외 공역, 『애착장애 로서의 중독』(서울: NUN, 2010), 269-270.

58)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129.

59) 정석환, “코헷의 자기심리학과 목회상담”, 344-346.

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며 몸의 털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고전 23:22-23) 것이 돌봄 사역이다. 교회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롬 12:15-16) 친교를 회복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관계중독은 일반적인 중독에서 나타나는 중독물에 대한 지나친 갈망, 의존, 내성, 금단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들이 중독적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고 강력한 중독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재발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중독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 되듯이 관계중독은 공감적 관계 안에서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인 교회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Ⅲ. 닫는 글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상담의 삼중구조 상담 관계를 통한 관계중독의 회복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아울러 교회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관계중독은 관계에 대한 절실한 필요와 갈망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짐으로 인해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중독은 만성적인 심리적 공허함, 불안, 우울 증상을 보이고 심지어 자해 행동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기도 한다. 또한 가정, 직장,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현상적인 문제일 뿐,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자기에依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중독적

관계에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약물이나 일반적인 심리 상담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을 간과 한다면 재발이 불가피하다. 또한 관계중독은 중독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독 치료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경적 상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담과정에서도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성경적 인간이해가 전제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관계중독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망이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숭배(self-worship)이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한다. 그러나 관계중독자가 끈질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치료의 개념이 아니다. 자신과 분투하는 내담자를 장기적으로 돕고 함께한다는 것은 상담자로서 고된 작업이며 상당한 인내와 사랑이 요구된다. 내담자의 내면적 결핍과 갈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고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관계중독의 치료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의 회복을 돕기 위한 성경적 상담이 상담 현장에서 특히 '상담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성경적 상담에서 상담관계의 주요 가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수평적 관계이다. 삼중구조 상담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상담자, 하나님과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직적인 국면이 다른 일반적인 상담의 이자(二者)관계 형태의 상담과 성경적 상담을 차별하게 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관계(counseling relationship)자체가 치료적 기

능을 할 수 있다. 삼중구조 상담관계의 접근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여기의 상담 장면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담자가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담자와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과정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관계중독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일대일 상담에서 더 나아가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지체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의존과 집착으로 자신의 불안과 부적절감을 해소하려는 관계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포기하거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공동체 내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며 성경적 상담의 중심 자원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취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경험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성도들에게 중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고 중독자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교회공동체의 돌봄 사역이 희생과 사랑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모습을 실천해 간다면 죄로 고통 하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병오.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 김상인. 『상담심리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 샘가, 2000.
- 김영근. “기독교상담과 성령”.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 연구소, 2004.
- 김영희. “21세기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3권(2004): 65-90.
- 김용태.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2000.
- 김 준. “부부갈등과 용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적 관점”.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5권(2017): 9-34.
- 김준수.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데, 2008.
-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 (2010): 105-133.
- 안은숙.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2013): 156-189.
- 이상원. 『21세기 십계명 여행』. 서울: 토기장이, 1999.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출판부, 2005.
- 이재진.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서울: 투리박스, 2015.
- 이홍찬.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전요섭. “목회상담에서 기도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결신학연구소. 『성결신학』 제 3권(1998): 203-219.
- 전요섭.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3권(2004): 8-33.
- 정석환. “코헛의 자기심리학과 목회상담”. 연세대신과대학교. 『신학논단』 제27권(1999): 319-348.
- 황규명.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과 복음”.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4권 (2005): 8-28.
-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2008.
- 홍이화.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Bireda, M. R. *Love Addiction*. 신민섭 역. 『사랑중독증』. 서울: 학지사, 2005.

- Bowen, Murray.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In *Family Therapy: Major Contributions*. Eds. Robert Jay Green and James L. Framo.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1.
- Bowlby, John.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London: Hogarth, 1973.
- Bradshaw, John.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김홍찬 · 고영주 역. 『수치심의 치유』. 서울: 한국기독교상담연구원, 2002.
- Egan, Gerard. *Essentials of Skilled Helping Managing Problems and Developing Opportunities*. 제석봉 역. 『Egan 상담모델과 상담기술: 문제해결과 기회개발』. 서울: 센제이지러닝코리아, 2008.
- Firestone, Robert W. & Joyce Catlett. *Fear of Intimacy*. 김경옥 역. 『친밀감의 두려움』. 서울: 눈 출판그룹, 2012.
- Flores, Philip J.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김갑중 외 공역. 『애착 장애로서의 중독』. 서울: 눈 출판그룹, 2010.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이용중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 Gergen, Kenneth. J. *The Saturated Self: Dilemma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Life*. New York: Basic Books, 1991.
- Greenberg, Jay R. & Stephen R.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Keller, Timothy.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 서울: 베가북스, 2009.
- Kohut, Heinz.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Laaser, Mark. *Faithful & True : Sexual Integrity in a Fallen World*. 정성준 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서울: 예수전도단, 2007.
- Lambert, Heath.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김 준 역.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 MacArthur, John. *How to Counsel Biblically*. 안경승 역. 『상담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 Marshall, Tom. *Right Relationships*. 채두병 역. 『관계』. 서울: 예수전도단, 2004.

- Mikulincer, M.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no.2(2002): 133-161.
- Mikulincer, M. & P. Shaver. *Attachment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 Neziroglu, Fugen & Tobias, Yaryura J. A. 지익성 · 김영란 역. 『자유를 찾아서-강박신경증의 이해』. 서울: 하나의학사, 1997.
- Peabody, Susan. *Addiction to Love*. 류가미 역. 『사랑중독』. 서울: 북북서, 2010.
- Schaef, Anne Willson. *Co-Dependence: Misunderstood-Mistreated*. Minneapolis: Winston Press, 1986.
- Tarr, Der.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Eds.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Peabody, MA.: Hendrickson, 1985.
- Tripp, Paul.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7.
- Welch, Edward T. *Addiction: A Banquet In The Grave*. 『중독의 성경적 이해』. 김 준 역. 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2013.
- Whiteman, Thomas. & Randy Peterson. *Victim of Love*. 김인화 역.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서울: 사랑플러스, 2009.
- Wright, Norman. *Crisis Counseling*. 전요섭 · 황동현 역. 『위기상담학』. 서울: 쿰란출판사, 1998.

【 Abstract 】

## Threefold Relationship of Biblical Counseling for Recovery of Relationship Addiction

**Insuk Jung**

Peacemaker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addiction and the method of recovery of relationship addiction through the triple structure of biblical counseling. Relationship addiction is self-cultivating behavior that comes from self-centeredness that constantly aspires to relationships to satisfy self-desires through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recover relationship addiction through the triple-structure counseling which can overcome a limit of the d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The triple structure-counseling relationship based upon the empathic trust relationship is that the counselor helps the client to establish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and both of them experience God's love through the triple structure-counseling relationship of God-counselor-client.

In addition, it emphasized that the sense of solidarity with the affiliation of the church community,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and the direction through the caring ministry of the church community are important factors for restoring the image of God from relationship addiction. In relationship addiction counseling, the counselor should know the importance and limitation of one-on-one counseling and help the client to belong to the church community, establish a firm identity in Jesus Christ, and experience new relationships, and expand relationships in God's family community.

**Key words:** relationship addiction, biblical counseling, counseling relationship, counselor, church community